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소비자의 권리 증진하기 위해 ‘소비생활 기본계획’ 수립	도쿄
문화·디자인	4	도시 문화유산을 보전·창조하고 ‘도시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예술정책 시행	시드니
건강·복지	5	대규모 아동센터 단지 조성계획 추진	코펜하겐
	8	청소년 대상 비만 및 건강 관련 조사 이후 건강 관련 법안 강화	시카고
	9	예술가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장터 후원	리버풀
	10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과학관 운영	상하이
도시환경	11	‘수도시설 재구축 기본구상’ 수립	도쿄
	13	대형트럭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시카고
도시교통	15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새롭게 선보인 자전거 파클렛(Parklet)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주택	16	도심에 초소형 아파트 건설 확대	샌프란시스코



해드 라인 뉴스 (산업·경제)

1. 소비자의 권리증진하기 위해 '소비생활 기본계획' 수립 (도쿄都)

○ 도쿄都是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각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관계자들과 연계 협력해 2013년부터 5년간을 계획연도로 하는 '도쿄都 소비생활 기본계획'을 제정함.

- 都는 도민의 소비생활 안정 및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증진하기 위해 1997년 2월부터 '도쿄都 소비생활 조례'를 제정해 소비생활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왔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확대 등 소비생활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단순한 지식 습득 수준이 아닌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이번 기본계획이 제정됨.
- 이번 계획에서는 ① 악질사업자 단속 및 시장에서의 퇴출, ② 소비자 교육 추진, ③ 소비생활에 관련된 정보의 전략적인 수집 및 전파, ④ 都 소비자생활종합센터 기능 강화의 4가지를 중점 정책으로 정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도쿄都 소비생활 기본계획’의 중점 정책 및 구체적인 내용】

중점 정책	구체적인 정책
악질사업자 단속 및 시장에서의 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질사업자에 대한 단속 - 부당표시에 대한 감시 강화 - 법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중앙정부의 움직임 -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
소비자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 -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의 소비자교육 추진 지원
소비생활에 관련된 정보의 전략적인 수집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수법을 통한 정보 전파 강화 - 아이들의 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 전파 및 보급
도쿄都 소비자생활종합센터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생활 상담서비스 향상 -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 지원 강화 -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를 통한 소비자교육 전개

- 나이가 ① 소비자피해 방지, ② 악질사업자의 시장(市場) 퇴출 및 거래의 적정화, ③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 확보, ④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도록 지원, ⑤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등 5가지 정책과제별로 세부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함.

【‘도쿄都 소비생활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대책의 방향성】

정책 과제	세부 과제	구체적인 대책의 예
소비자피해 방지	소비자피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망 등
	소비자피해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생활 상담서비스 향상(중점정책) 등
악질사업자의 시장 퇴출 및 거래의 적정화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질사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적정한 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표시에 대한 지도 강화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 확보	안전한 상품 및 서비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을 느낀 경험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잠재적 위험 정보 제공 등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른 안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확대 방지대책 등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양로원 운영지도 및 도민에게 정보 제공 등

정책 과제	세부 과제	구체적인 대책의 예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 확보	생활 관련 상품 및 자원에너지 등의 가격 변동에 대응	-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생활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등
	재해 시 생활물자 등의 확보	- 재해 시 긴급생활물자 유통 확보 등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도록 지원	효과적인 정보 전달	- 새로운 수법을 통한 정보전달 강화(중점 정책) 등
	소비자교육 추진	-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중점 정책) 등
	소비자의 조직적인 활동 지원	-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등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	- ‘소비자의 달’에 실시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 의식 계발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소비자가 도정에 참여	- 소비생활 조사원 조사 등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 적격 소비자단체 지원 등
	상업자단체 등과의 협력	- 사업자가 실시하는 소비자교육 촉진 등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 소비자행정 지원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접촉	- 특정 상거래법 대상 확대 등

-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한 都 산하 ‘소비생활대책심의회’가 매년 당초 계획한 각각의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도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사업실적을 확인·평가해 都에 의견을 제출하면 都가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운영할 예정임.

(www.shouhiseikatu.metro.tokyo.jp/boshu/)

(www.shouhiseikatu.metro.tokyo.jp/boshu/pdf/gaiyou.pdf)

(www.shouhiseikatu.metro.tokyo.jp/boshu/pdf/chuukannomatome.pdf)

문화 · 디자인

도시 문화유산을 보전·창조하고 ‘도시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예술정책 시행 (호주 시드니市)

- 호주 시드니市는 2011년에 수립한 ‘도시종합계획 2030’의 일환으로 공공예술정책을 시행함. 이번 전략계획은 자연적, 문화적인 도시유산을 보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市는 ① 혁신과 창조를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 ② 도시 옥외 예술품을 파악해 도시를 대표할 만한 주요 예술품, 활동, 행위예술 장려 등도 주요 목표로 삼음.
 - 市는 또한 문화예술작품을 도시의 한 요소로 젖어들게 하고 공공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도 함께 마련함.
- 이번 전략계획에서는 다소 애매하고 불명확한 공공예술부문에 대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함.
 - 예술: 자신의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인지되는 모든 작가, 창작활동가, 행위예술가의 산물
 - 공공예술: 예술활동이나 작품을 일컫는 광범위한 문화예술작품 중 공공장소나 자연 등 공적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
 - 도시예술: 도시문화전략의 일부로 정의하며 도시와 연계된 작가의 작품으로 도시민과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 본 정책에서는 8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자체가 이를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도시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도시종합계획의 큰 틀 안에서 연계되도록 할 것, ② 호주 원주민 관련 유산과 이야기를 공공장소에 표현할 것, ③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고 단기 작품활동을 프로젝트화해 지속적으로 공공과 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것. ④ 커뮤니티 단위 센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어린이, 주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장소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민간 주도의 고급문화 발전을 장려 및 유도할 것, ⑥ 이해관계자 및 시민, 정부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실현이 가능하도록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⑦ 도시정부 소유의 공공미술품 유지, 수집, 관리를 강화하고 복원, 보존, 유지 정책을 지속하고 필요한 펀딩도 확보할 것, ⑧ 새로운 ‘도시예술’ 개념에 대해 홍보,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

(<http://www.cityofsydney.nsw.gov.au/Council/documents/policies/PublicArt.pdf>)

건강 · 복지

2. 대규모 아동센터 단지 조성계획 추진 (덴마크 코펜하겐市)

- 덴마크 코펜하겐市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대규모 아동센터 단지가 2014년에 지어질 예정임. The Prinsessegade Kindergarten and Youth Center는 2025년까지 0세에서 18세까지의 유아, 청소년의 인구가 2만 2000명 이상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구조적인 수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성됨.



- 이 단지는 일반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아이들만의 집, 소방서, 경기장, 광장과 시청 등 실제 도시 내에 있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단지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총 6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센터의 설립 목적은 시청에서 음악 공연을 하거나 레스토랑의 메뉴를 구성하는 등 여러 직업을 미리 체험해보면서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생각을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대규모 아동센터의 현상 설계 공모전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춤.



- 현상 설계에서 당선된 조경건축 회사 PK3는 기존의 나무들을 이용해 그늘진 녹지공간을 만들고 건물 사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디자인을 선보임. 또한 단지 내에 조성될 시청 주변과 해변가 사이의 공간을 자연스러운 조경으로 연결되도록 디자인함.
- 레스토랑은 6살 이상의 어린이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점심시간에 요리사를 돋기도 하고 옥상 정원에서 키우게 될 토마토 등의 채소와 꽃에 물을 주는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시청에서는 뮤지컬이나 크리스마스 쇼가 열리게 되고 옥상에는 태양전지판이 설치되어 건물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함. 여름에는 데크

에 나갈 수 있도록 옥상을 개방할 예정임.

- 공장 건물은 7살 이상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 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 이 이루어지는 공간임.
- 소방서는 어린 아이들과 큰 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며, Moon Car(달의 표면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차) 주 차장도 설치됨.

(www.architizer.com/en_us/blog/dyn/62150/a-real-life-neverland-copenhagen-builds-a-city-for-kids/)

청소년 대상 비만 및 건강 관련 조사 이후 건강 관련 법안 강화 (미국 시카고市)

- 현재 미국에서는 비만 억제를 위해 각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탄산음료 및 건강위해식품을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음. 특히 시카고市는 2012년에 실시한 18세 이하의 학생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市는 2012년 시카고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한 조사 'Healthy Place'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70% 이상의 학생이 건강상 유익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어 학생들에게 건강 관련 식품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에 대한 설문 방식으로 실시됨. 5가지 기준은 1일 기준으로 ①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 여부, ② 4병 이상의 물 섭취 여부, ③ 3회 이상 저칼로리 음식 섭취 여부, ④ 2시간 이하의 TV 및 모니터 시청 여부, ⑤ 1시간 이상의 야외활동 여부 등임. 市는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인종별로 조사결과를 발표함.
- 市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5-4-3-2-1 Go!'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과 비만 관련 교육을 강화함. 여기서 5는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 4는 4병

이상의 수분 섭취, 3은 3가지 이상의 저칼로리 음식 섭취, 2는 2시간 이하 TV 및 모니터 시청, 1은 1시간 이상 운동 등을 의미함.

- 또한 市는 모든 공공기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식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함. 이 법안은 201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 및 스낵류를 건강음료로 대체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함.
 - 칼로리가 높은 음료 비율이 25% 이하로만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탕과 소금, 글루틴 등 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성분의 함량을 일정 비율로 규제함.

(www.healthyplaceschicago.org/news.lasso)

(www.clocc.net/partners/54321Go/index.html)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mayor/press_room/press_releases/2012/november_2012/mayor_emmanuel_announcesnewhealthyvendingmachinestobelocatedacros.html)

예술가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장터 후원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상업화되고 천편일률적인 크리스마스 선물매장보다는 예술가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작품을 사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장터(The Winter Arts Market)를 후원하기로 함. 市는 보통 광장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장터가 아니라 지역 예술가와 수공예가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예술장터를 기획함.
 - 2012년 12월 8~9일 주말 이틀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고전주의 건물인 St George's Hall에서 잉글랜드 중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리스마스 예술장터가 열림. 장터에는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해 총 1000여 종이 넘는 작품을 내놓음. 16세 이상 성인은 입장료 1.5파운드(약 2600원)를 받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입장할 수 있음.
 - 예술장터에서는 다양한 예술작품과 생활 수공예품이 서민들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거래됨. 보석 장신구, 스크린 염색 작품, 그림, 식기류, 미용 관련 제품, 다양한 실내 장식품, 액세서리류, 직물과 사진, 손으로 짜거나 만든 편

직물 의류, 삽화, 짚풀 수공예제품 등이 주로 판매됨. 1000여 종의 작품은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이 거래되는 대형매장 중심의 시장과는 달리 새로운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예술장터 이외에도 시민이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고 볼거리도 풍부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기획됨. 무료 어린이 예술 체험교실, 음악공연 행사, 크리스마스 음식장터 등이 함께 열림.



【직접 만든 작품을 통해 크리스마스

장터에 참여한 예술가들】

(www.dalestreetnews.com/2012/12/03/handmade-christmas-comes-to-liverpool/)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과학관 운영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市는 ‘지역사회에 과학지식을 전파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동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음. 이동과학관은 광학, 역학, IT, 전자학, 자기공학, 음향학, 수학 등 총 7개 카테고리의 30여 개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동과학관은 상하이과학기술관을 지역사회 주민센터로 옮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과학지식을 제고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이동과학관은 상하이 전역의 지역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매회 수백 명의 주민이 참관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
- 이번 행사는 기존의 기업 단위 사회공헌활동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에코시스템의 창조(Creating Social Eco-system)로 성공적인

사회공헌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市는 그동안 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기금과 상품 및 서비스를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이러한 성격의 행사를 진행해왔음.

- 이번 행사에서는 상하이 자원봉사협회와 기업 내 자원봉사협회 소속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주민에게 전시물을 설명해주고 질문도 받음. 단순한 참관 차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각 전시물을 설명해주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퀴즈 및 경품도 준비하는 등 주민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마련됨.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빨간 훨체어 서비스’를 준비해 장애인이 집에서 과학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21ai684863.html)

(<http://sh.wenweipo.com/index.php?action=viewnews-itemid-9431>)

도 시 환 경

3. ‘수도시설 재구축 기본구상’ 수립 (도쿄都)

- **도쿄都** 수도국은 대부분의 수도(水道)시설이 얼마 안 있어 일제히 간신히 생활수급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수도시설을 재구축해 기후변화 및 재해의 위험성과 전력사용량 증가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자 2012년 3월 ‘도쿄 수도시설 재구성 기본구상’을 수립함.

- 이 기본구상은 이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의 首都 도쿄에 어울리는 수도시설의 재구축을 생각하는 모임’의 보고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100년 후에도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 한 수도시설의 재구축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 본 구상에서는 수도시설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재구축을 위해 ①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급수 실현, ② 철저하게 수질을 보장하려는 노력, ③ 저에너지화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나아가 이들 3가지 기본방향을 근거로 7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열거하고 있음.

【수도시설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7대 목표 및 주요 대책】

목표	주요 대책
首都 도쿄를 지키는 상수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설 중인 상수원 확보 - 상수원의 취수 안정성 향상 - 재해 및 사고 등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지하수를 제한적으로 사용 - 이미 확보한 상수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물의 효과적인 이용 추진 - 상수원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간신, 내진화 -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공급능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정수장 간신을 위한 대체 정수장 시설 정비 - 재해 및 사고 등의 리스크에도 대응 가능한 정수시설능력 확보
정수장의 효율적인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를 고려한 대체 정수시설 정비 - 경계 정수장의 능력 강화(저탄소형 시범정수장 정비) - 다마천(多摩川) 상류지역에 정수장 설치 검토 - 다마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재편
지속가능한 정수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장, 급수소 등에 자가발전설비 증강 정비 - 상수원 수질에 따라 새로운 정수처리 도입 - 위치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정수장 내 시설배치 변경 - 신재료 및 신기술 등의 활용을 통해 시설의 장수명화 및 집약화
미래를 고려한 백업기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수(導水)시설의 이중화 - 간신시기 등을 고려한 송배수관의 네트워크화 및 이중화 - 간신을 통한 정수장 처리계열의 복수계통화 - 급수소의 신설, 확충, 간신

목표	주요 대책
에너지의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정수장 내 시설배치 변경 - 직결배수 및 지상화 등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급수소 정비 - 태양광발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용 - 소수력발전 등을 통한 미이용 에너지의 효과적 활용 - 펌프 정비 등 에너지 절약화 추진 - 저탄소형 시범정수장 정비
보다 고도화된 방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수시설 및 도수시설의 내진화 - 저수지 저방 강화 - 정수장 및 급수소 시설, 관로, 설비 등의 종합적인 내진화 - 수도관로의 내진이음새 처리 - 급수관의 내진화 - 정수장, 급수소 등에 자가발전설비 증강 정비 - 방수문 및 방수벽 등 설치 - 침수피해를 고려해 설비 보강

- 都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안전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력의 유지향상과 계승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조치를 병행 검토해 나갈 예정임.
[\(www.waterworks.metro.tokyo.jp/press/h23/press120328-1.html\)](http://www.waterworks.metro.tokyo.jp/press/h23/press120328-1.html)
[\(www.waterworks.metro.tokyo.jp/press/h23/pdf/press120328/02.pdf\)](http://www.waterworks.metro.tokyo.jp/press/h23/pdf/press120328/02.pdf)

대형트럭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시내에서 운행되는 트럭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센티브인 E-Truck Incentive Program을 제공하고 市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도 전기차로 대체하기로 함.
- 市는 지역 내 기업과 개인이 전기차량을 구입할 경우 일반 디젤차와 전기차 가격 차이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를 구입하는 시점에 인센티브로 제공 할 계획임. 2013년 상반기에 250대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 될 예정임. 전기로 운행하게 될 트럭은 운영비용을 50% 이상 절감하고 소음

및 대기오염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市가 운영하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전기트럭 20대를 도입하기 위해 전기트럭 주문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이러한 시도는 미국 내에서 최초임.



【전기트럭 모습(왼쪽). 전기를 차량에 충전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 이밖에도 일반 전기차 도입 장려를 위해 404대의 차량(CNG 가스차량과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함. 市는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도입 노력으로 연 20만 배럴(약 3178만 리터)의 석유소비를 줄이고 285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www.truckinginfo.com/fuel-smarts/news-detail.asp?news_id=78636&news_category_id=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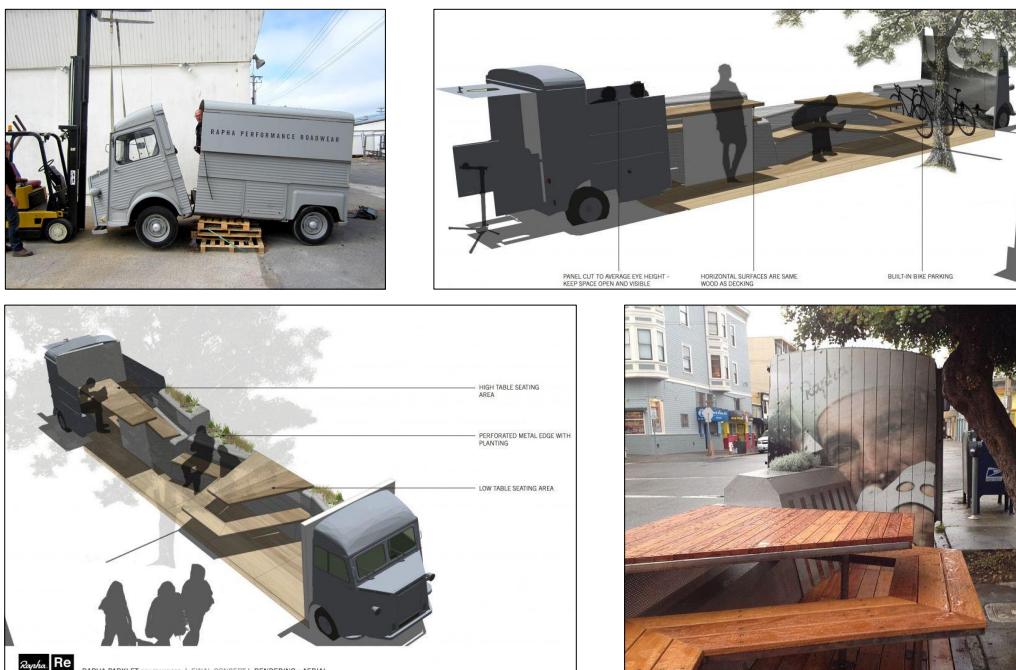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dps/provdrs/events/news/2012/dec/mayor_emmanuel_announcesnewordinancetoencouragefuelandelectricveh.html)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ot/provdrs/conservation_outreachgreenprograms/news/2012/nov/mayor_emmanuel_announcesnationsleadingincentiveprogramtoencourage.html)

도시 교통

4.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새롭게 선보인 자전거 파클렛(Parklet)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Fillbert가(街)와 Fillmore가(街)가 만나는 곳에 해체된 트럭을 이용해 새롭게 디자인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파클렛(Parklet)이 등장함. 파클렛은 2005년에 캐나다 밴쿠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어 샌프란시스코市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반영구적인 공공 공간으로 주로 도로변의 승용차 2대 주차공간에 테이블, 의자, 나무, 화분 등을 이용해 조성됨.



- 이 파클렛은 프랑스의 자동차회사 Citroën에서 만든 오래된 트럭을 해체한 뒤 그 사이에 테이블과 의자, 자전거 거치대, 화분을 놓는 식

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시민과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함.

- 이 파클렛을 기획한 Rapha Cycle Club은 자전거 가게인 동시에 카페를 운영하는 곳임. 이곳의 모회사인 Rapha는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자전거장비 제작업체인데 1940년대에 농장에서 발견된 오래된 Citroën 트럭을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되었고, 뉴욕에서 팝업 스토어로 얼마간 사용한 뒤 샌프란시스코로 보내 새롭게 디자인한 뒤 파클렛으로 이용하게 됨.
- 과거에 이 차량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사이클 대회인 Tour de France에서 낙오된 참가자를 수송하는 데에도 사용됨. 이 차량이 다시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샌프란시스코 자전거 이용객의 휴식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임. 지금까지 98%의 이용객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www.theatlanticcities.com/commute/2012/11/san-franciscos-new-bike-parklet-dismembered-citroen-h-van/3933/)

도시계획 · 주택

도심에 초소형 아파트 건설 확대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의회는 날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220ft^2 (약 20m^2 , 6평) 크기의 초소형 아파트 건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그 영향을 분석한 후 추후 정책을 펴나가기로 함.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소형 아파트 건설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밴쿠버市는 226ft^2 (약 21m^2), 뉴욕市는 275ft^2 (약 25.5m^2)의 초소형 아파트 건설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 아파트는 도심에 거주하기 원하는 독신, 신혼부부, 노부부를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초소형 아파트 건설 허용 법안의 통과로 325세대가 우선적으로 건설될 예정임. 향후 초소형 아파트 건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초소형 아파트는 주변지역의 평균 월세비용 2075달러(약 220만 원)에 비해 1300~1500달러(약 140만~160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임. 초소형 아파트는 거실, 부엌, 화장실로 구성될 예정이며 접이식 탁자와 침대를 설치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임.
- 초소형 아파트 건설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초소형 아파트의 건설이 날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고, 더욱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민만 양성할 뿐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市는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없거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는 독신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저렴한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5000세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임.



【초소형 아파트 디자인】

(www.sfgate.com/default/article/S-F-supervisors-back-micro-apartments-4055493.php#photo-3767320)

(www.wired.com/design/2012/11/san-francisco-micro-apartments/all/)

(<http://www.smartspace.net/locations/soma/brochure/>)